

영남지역 가단의 성립과 그 계승

권 두 환 (서울대)

1. 문제의 제기
2. 가단의 개념
3. 가단의 형성
4. 또 다른 가단의 가능성
5. 요약과 전망

1. 문제의 제기

이 글이 목표로 삼고 있는 영남지역 가단의 성립과 그 전개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논제와 관련된 연구사를 되짚어보는 일이 긴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趙潤濟 교수가 영남가단의 존립 가능성을 제기한 논문을 발표한 것은 1965년의 일이다.¹⁾ 이 논문은 (1)조선 초기에 다수의 학자들 즉 致仕客은 물론 산림에 문헌 처사들의 이해와 참여에 의하여 시가문학의 대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점, (2)이 가운데 시조는 인생에 대한 고민과 자연미에 대한 감흥을 표현하는 장르로서 한시와 똑같이 학자들의 교양물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질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 (3)이러한 문학사의 흐름 속에서 退溪 李滉(1501-70)을 중심으로 한 영남가단이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4)이 가단에 참여한 인물로는 退溪를 비롯하여 龔巖 李賢輔(1467-1555)·藏六堂 李鼈(1475?-?)·晦齋 李彥迪(1491-1553)·愼齋 周世鵬(1495—1554)·錦溪 黃俊良(1517-64) 등으로 추정되고, 그 전개과정에는 松岩 權好文(1531-1587)·善迂堂 李諤(1569-1636)·蘆溪 朴仁老(1561-1642) 등

1) 조윤제, 「퇴계를 중심으로 한 영남가단」, 『호문집』 8, 청구대학, 1965, 1-13면.

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논한 바 있다.²⁾

(1)에서 (4)에 이르는 논점에 대한 후대 연구자들의 연구는 개별 작가론이나 작품론의 경우까지도 어느 한 항목에 국한되지 않고 항목 상호간에 유기적인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으나, 논의의 편의상 각 항목에 대한 연구사의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1)에 대해서는 이 방면의 연구자라면 누구나 한 편씩의 논문을 작성하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그 연구 성과가 꾸준히 집적되고 있다.³⁾

(2)에 대해서는 크게 보아 두 가지 방면의 연구가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작가군의 특성에 착목한 이른바 사람과 연구로서 사람과의 학문과 문학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사람과 문학에 대한 연구는 한시문과 국문시가를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⁴⁾ 또 다른 하나는 그 문학적 특성에 착안한 이른바 상호가도에 대한 연구로서 국문시가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⁵⁾

(4)에서 거론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연구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며, 특히 영남지역에서 산출된 여타의 국문시가 작가가 속속 발굴됨으로써 개별 작가와 작품의 의의는 물론 그들 상호간의 영향 관계가 깊이 있게 검토되고 있다.⁶⁾

2) 이 논문에서 거론한 사항들 중에는 일찍이 『조선시가지사강』(박문출판사, 1937), 『한국문학사』(동국문화사, 1948), 『한국시가의 연구』(을유문화사, 1948) 등의 저술을 통하여 정리한 내용을 옮겨 온 부분이 없지 않지만 후대 연구자들이 이와 같은 논의 내용에 대하여 보여준 반향은 엄청난 것이었다.

3) 성호경의 『조선전기시가론』(새문사, 1988), 『한국시가의 유형과 양식 연구』(영남대 출판부, 1995) 등을 비롯한 수많은 연구자의 논저들이 광범위하고도 실증적인 논의를 보여주고 있다.

4) 문학 방면에서는 이민홍의 『사람과문학의 연구』(형설출판사, 1985)와 최재남의 『사람의 향촌생활과 시가문학』(국학자료원, 1997), 사학 방면에서는 이수건의 『영남사람과의 형성』(영남대 출판부, 1979)과 이성무의 『조선초기양반연구』(일조각, 1980), 철학 방면에서는 윤사순의 『한국유학연구』(현암사, 1980), 『한국유학사상론』(열음사, 1986)과 금장태의 『퇴계철학의 탐구』(서울대 출판부, 1998), 『한국유학의 탐구』(서울대 출판부, 1999) 등이 대표적인 저술들이다.

5) 최진원의 『국문학과 자연』(성균관대 출판부, 1977), 『한국고전시가의 형상성』(성균관대 출판부, 1988), 이래로 여기현의 『고전시가의 표상성』(월인, 1999), 김병국의 『고전시가의 미학 탐구』(월인, 2000), 손오규의 『산수문학연구』(제주대 출판부, 2000) 등의 광복할 만한 연구 성과들이 학계에 보고 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논문의 핵심 문제였다고 할 수 있는 (3)영남가단의 성립 가능성을 두고 말하자면 사정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趙東一 교수가 『한국문학통사』를 서술하면서 그 용어와 개념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⁷⁾ 영남가단을 연구대상으로 지목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일종의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방면의 연구자들이 영남가단의 형성 가능성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로 한국시조학회가 1987년 6월에 “16C 가단에 대하여”라는 공동주제를 설정하고 개최했던 연구발표회를 들 수 있다. 시조문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들이 모인 학술단체에서 영남가단·호남가단·기호가단이라는 3개 지역의 가단을 상정하고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영남가단의 형성에 대한 암묵적 동의를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영남가단에 대한 연구발표자였던 李東英 교수는 영남지역에는 가단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종래의 견해를 거듭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영남가단의 형성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암묵적 동의와 더불어 이와 같은 부정론이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이거나 간에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⁸⁾

사정이 이렇게 된 까닭은 우선 이 방면의 연구자들이 이 가단의 형성 가능성에 대한 심증은 있지만 그 활동상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줄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 점은 영남가단의 형성 가능성을 상정한 장본인인 조윤제 교수 스스로도 결론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단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매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⁹⁾

6) 이동영의 『조선조 영남시가의 연구』(형성출판사, 1984.)가 영남지역에서 산출된 국문시가 전체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 이래로 수많은 연구 업적들이 뒤를 잇고 있다.

7) 조동일은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1983.)의 ‘시조의 정착과 성장’이란 절에서 ‘영남가단과 강호가도’, ‘호남가단과 풍류정신’이란 세부 항목을 설정한 바 있다.

8) 한국시조학회 편, 『시조문학연구』 제3·4집, 1987·88년 참조.

9) 조윤제 교수는 위 논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영남가단의 성립 가능성을 매우 조심스럽게 개진하고 있다. 특히 결론 부분인 ‘5. 영남가단의 형성’에서까지도 “중세시대에 영남에서는

영남가단이란 용어가 애매한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점 또한 이
 방면의 연구를 주저하게 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라고 하겠다. 다
 음 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조운제 교수는 일찍이 『조선시가가강』
 이란 저술에서, 18세기에 이르러 金天澤·金壽長 등 평민 가객들이 시조문
 학과 관련하여 집단적인 활동을 한 사실을 적시하면서 이들의 모임에 歌壇
 즉 敬亭山歌壇이란 명칭을 붙여 그 존재를 드러낸 바 있다.¹⁰⁾ 따라서 조운
 제 교수는 분명한 개념 규정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한 개념을 염두
 에 두고 그 개념을 영남가단과 경정산가단에 동시에 적용하려 하였으나 그
 개념의 적용에 상당한 무리가 따랐기 때문에 영남가단의 존재에 대하여 마
 지까지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영남가단이라는 명명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점
 을 따져볼 필요가 있게 된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영남이라는 용어가 지
 칭하는 지역의 광역성이다. 특정한 시기, 특정한 인물, 특정한 활동 영역과
 무대를 전제로 가단이라는 용어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라면, 영남가단이란
 명명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조운제 교수가 굳이 영남가단이란 용어를 설정한 데에는 그 나름
 의 이유와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다. 그 이유와 의도로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6세기 무렵에 영남
 지역에서 산출된 국문시가가 예컨대 호남지역에서 산출된 그것들과 비교하
 여 볼 때 서로 다른 독특한 면모와 내용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
 시적으로도 동일 지역에서 산출된 국문시가 상호간에 밀접한 영향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영남과 호남지역에서 산출한 국문시가를 연구한 연구
 자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영남가단의 존재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보
 인 이동영 교수도 ‘영남시가’의 역사적 전개에 대해서는 타 지역의 그것과는

퇴계를 중심으로 하여 한 가단을 형성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앞
 서 말해 온 여러 가지 사실로 미루어 학자간에 시가를 숭상하고 서로가 시가를 즐겨 짓는
 분위기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었으리라 하는 것쯤은 단언하여 두어도 좋을 듯하다.” 고 말
 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가 된다.

10) 조운제, 『조선시가가강』, 박문출판사, 1937, 401-407면 참조.

사뭇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丁益燮 교수가 호남 지역에서 산출된 국문시가와 관련하여 ‘호남가단’이란 용어를 설정하고, 그 세부적인 실체로서 俛仰亭 宋純(1493-1583)이 주도했던 俛仰亭歌壇과 그 뒤를 이은 星山歌壇 등을 적시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¹¹⁾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두 지역에서 시가문학과 관련하여 활동한 인사들의 면모와 그들의 활동 내용은 상당한 정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예컨대 영남의 龔巖과 호남의 俛仰亭은 16세기 초·중엽의 국문시가의 산실이자 바로 그러한 작품 산출을 주도했던 맹주들의 호이기도 하다. 또 이들 맹주와 긴밀한 교유 관계에 있었던 영남의 退溪와 호남의 河西 金麟厚(1510—60)는 각각 양 지역의 도학의 전통을 열었던 인물이다. 그리고 이들이 산출한 국문시가의 주제와 체재 및 그 표현방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적이라는 것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비교와 대조는 특히 문학사를 서술하는 자리에서 매우 유용하고도 설득력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마도 조운제 교수는 이러한 점까지를 염두에 두고 영남가단이라는 용어를 설정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영남가단을 연구대상으로 논의한 성과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가사강』·『한국문학사』 등의 저술을 통하여 문학사 서술에 큰 관심을 보였던 조운제 교수의 착안에 이어, 조동일 교수가 『한국문학통사』에서 ‘영남가단과 강호가도’와 ‘호남가단과 풍류정신’이란 항목을 설정하여 양자를 대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짐작이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반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학사 서술의 편의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영남가단이란 명명법은 영남지역에 단 하나의 가단만 존재했다는 확증이 없는 한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다. 영남가단이란 용어를 영남지역에서 산출된 국문시가의 내용과 그 역사적 흐름을 조감할 때에 한하여 계속 범칭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그 역시 혼란을 초래할 것은 분명하다. 영남가단이란 용어 대신에 영남시가란 용어를 잠정적으로 쓰자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11) 정의섭, 『호남가단연구』, 진명문화사, 1975. 참조.

2. 가단의 개념

앞서 그 대강을 살펴본 연구사의 추이는 무엇보다도 먼저 가단의 개념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단의 개념이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는 한 가단의 성립 여부는 논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6세기 초 경북 예안 지방에는 과연 가단이라 지칭할 만한 집단 활동이 있었던 것인가, 또 그러한 활동이 있었다면 그것을 영남가단이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이 글이 해명해야 할 논점의 핵심인 만큼 그 개념 규정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조운제 교수는 『조선시가사강』에서 가단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또 사용한 바 있다. 그리고 18세기 중엽에 『청구영언』·『해동가요』 등 당대에 이르기까지의 시조문학 작품이 집성되고, 김천택·김수장을 중심으로 가객들이 운집하고 있었던 점에 주목하여 경정산가단의 성립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경정산가단의 경우에도 가단의 구체적인 형성과 전개과정을 말해 주는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조운제 교수가 사용한 가단이란 용어가 다소간 애매한 개념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이러한 상황에 연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단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문학사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가단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또 다른 유형의 집단 활동이 있었던 것인가를 살펴보고 그 개념을 원용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을 요하는 것은 경정산가단이 형성되던 시기에 이른 바 여항시인들에 의하여 결성된 詩社의 활동이다. 비록 그 관심의 초점은 시조와 한시로 구분되었지만 가단과 시사의 결성이 동일한 계층의 인물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 이들 상호간에 적지 않은 교류가 있었다는 점 등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千壽慶(?—1818)이 중심이 되어 1786(정조 10)년에 결성된 松石園詩社는 구체적인 기록을 많이 남기고 있어 그 성격과 개념을 규정하는 일이 어렵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송석원시사의 구성과 활동상을 검토하여 여항시인들이 결성했던 시사의 성립 요건을 정리한 후에 18세기 이후 전문가객들이 결성했던 가단

의 성격을 정리한 바 있는 기왕의 연구 결과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¹²⁾

- (1) 가단은 시조 창작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객 및 기생들의 친목단체이다.
- (2) 초기의 가단은 주로 서울의 남산 또는 인왕산 기슭을 활동무대로 삼았다.
- (3) 가단을 중심으로 시조집이 편찬되고 시조창곡의 발달이 이루어졌다.
- (4) 가단의 활동은 일부 사대부들이 격려·후원·동참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 (5) 가단의 활동을 통하여 전문가객들은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단의 개념을 16세기 영남지역의 인물들에 의하여 수행되었던 국문시가 관련 활동에 직접 대입하고 적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망발이 될 것이다. 우선 활동 주체의 신분과 계층 및 활동무대가 서로 다르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고, 2세기에 걸친 시간상의 거리를 고려할 때 시조문학의 위상 또한 사뭇 달랐을 것이란 점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활동 주체의 신분과 계층의 현격한 차이는 당연히 위에서 보인 (1)의 수정을 요하는 것이고, 그 활동 무대가 서울과 지방으로 구분되는 것은 (2)의 수정을 요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또한 16세기 초엽은 이른바 사림파로 규정되는 일군의 학자들에 의하여 시조가 한시와 더불어 향유할 수 있는 하나의 문학 장르로 이해되기 시작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3)과 같은 가단의 활동은 대폭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4), (5)와 같은 가단의 활동 양상 및 사회적 의미는 16세기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16세기의 사대부 계층 또는 사림파에 의한 가단의 형성은 또 다른 증거의 틀을 마련한 후에야 그 존재 여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이른바 호남가단이라는 존재이다. 호남가단의 형성과 전개과정은 전적으로 정익섭 교수에 의하여 재구성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단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난 연후에 연구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

12) 권두환, 「조선후기 시조가단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5. 35-43면 참조.

16世紀 湖南詩歌를 보면 대개의 경우 歌壇이란 것을 배경하여 그 활동이 전개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다. 이 歌壇이란 것은 대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중심으로 세워진 亭閣이나 樓亭을 말하는 것으로, 潭陽 鳳山面 霽月峰에 서 있는 俛仰亭이나, 昌平 星山에 있는 瀟灑園 環碧堂 息影亭 등은 아마 그 대표적인 歌壇이라 하겠다. 이들 歌壇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시가작품이 많이 생산되었는데, 가령 宋純의 俛仰亭歌나 俛仰亭短歌, 鄭澈의 星山別曲이나 兩思美人曲 그리고 그외의 수많은 短歌, 林億齡 金麟厚 등의 俛仰亭 三十詠, 金成遠 高敬命 등의 (한시가) 息影亭 歌壇을 배경해서 생산된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¹³⁾

歌壇이라고 하면, 노래 부르는 장소를 말한다. 그러나 ‘노래 부르는 장소’는 歌壇 말고도 歌臺 歌堂 歌所 등 여러 명칭이 쓰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칭은 단지 노래 부르는 장소만을 가리킬 뿐 어떤 특수 집단적 개념은 내포돼 있지 않다. 歌壇도 물론 제일의적 개념은 “노래 부르는 장소”임이 틀림없으나, 이 명칭 이면에는 “특수사회”라는 개념도 내포돼 있어 위 제 명칭과는 구별된다. 즉 文壇, 詩壇 할 때의 壇은 이것이 단지 “글을 짓는 장소”나 “시를 짓는 장소”라는 개념 말고도 “문인들의 집단” “시인들의 집단”이란 개념으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歌壇은 이 두 개의 개념(㉠ 노래 부르는 장소, ㉡ 특수집단)을 포괄해서 쓰고자 함을 말해 둔다.¹⁴⁾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익섭 교수가 설정한 가단의 일차적인 개념은 노래 부르는 장소라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호남의 담양과 창평 지역에 소재하는 면양정이나 식영정과 같은 누정이 바로 그러한 장소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장소를 배경으로 많은 시인들이 모여들어 국문시가와 한시를 창작하는 집단 활동을 전개했다는 것이 정익섭 교수가 규정한 가단의 이차적인 함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대에 이르러 만들어진 ‘문

13) 정익섭, 「16세기의 호남가단 연구」, 『시조학논총』 제3·4집, 1987·88, 26면.

14) 정익섭, 앞의 논문, 35-37면.

단'이나 '시단'과 같은 용어에 대해서도 일정한 배려를 한 결과로서, 가단을 장소 개념으로 규정한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문단'이나 '시단'이라는 용어가 일차적으로 특정한 장소 개념을 지니고 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단의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서 노래 부르는 장소를 일차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할 만하다. 가단의 장소 개념에 집착하게 되면, 이 개념의 적용에 상당한 혼란이 있게 된다. 예컨대 정익섭 교수가 두 번째 인용문에 이어 “물론 재래의 歌壇이 특수집단의 성격을 띠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이의가 있을 수 있다. 개중에는 어떤 자연인의 독무대적인 歌壇(尹善道의 金鎖洞 歌壇 같은)도 있었을 것이니 말이다.”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가 된다. 개별 작가가 일정한 장소에서 다수의 작품을 창작한 경우까지를 가단이라고 규정한다면 굳이 가단이란 용어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해야 할 까닭을 알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이다.

또한 영남가단이나 호남가단이란 명명법은 가단의 장소 개념마저도 모호하게 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익섭 교수가 “湖南이란 포괄적 지명을 붙인 것은 俛仰亭, 息影亭, 棲霞堂, 環碧堂, 瀟灑園 등의 각개 가단 명칭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이 불편하고 이 가단들이 위치한 지역적 성격도 감안,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대체한 것이 湖南이 됐다.”고 밝힌 바와 같이 호남가단이란 용어는 편의상의 범칭일 뿐이므로, 가단의 개념을 재정립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논의를 진전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가단이란 국문시가 창작과 향유 활동을 전개한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장소 개념은 부차적인 것일 뿐이라는 점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문시가라는 공동관심사에 입각한 집단 활동이 최우선적인 전제가 될 수 있어야만, 이들의 활동을 규정하는 특정한 시기·특정한 구성원·특정한 활동 내용 및 그 활동 무대가 부수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유형의 집단 활동이든 일단 집단 활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으려면 일정한 구성원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또한 그 구성원이 중심이 되어 활동을 전개한 일정한 기간과 장소 또는 지역을 배경으로 논의를 전개

해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¹⁵⁾ 따라서 가단이란 용어는 그것이 16세기의 가단이든 18세기의 가단이든 일단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1) 가단은 특정한 시기에 이루어진 국문시가 창작 및 향유 집단을 일컫는다.
- (2) 가단은 동일한 계층 또는 신분을 지닌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다.
- (3) 가단은 일정한 활동 무대를 중심으로 정기적·부정기적 활동을 벌인다.
- (4) 가단은 특정한 문학사적 또는 사회사적 의의를 지닌다.

물론 이와 같은 요건의 설정에도 몇 가지 단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우선 가단이 국문시가의 창작 및 향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그 구성원의 성격이나 활동 시기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주요 관심사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단서가 필요하다. 16세기에 영남지역에서든 호남지역에서든 사대부 계층의 인물들이 중심이 된 어떤 가단의 존재가 적시된다고 하더라도, 그 가단은 국문시가 가운데서도 시조 장르와 특별한 관련을 맺고 있어야만 할 것이나, 그 시대적 추이로 보아 전적으로 시조를 비롯한 국문시가에만 관심을 기울인 집단이라고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이 시기의 사대부 계층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학 장르는 한시였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¹⁶⁾

15) 예컨대 조선시대의 어떤 당파 또는 학파와 같은 집단 활동의 경우는 예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파나 학파의 연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마땅히 그 집단의 계보나 사승 관계를 추적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논의는 당연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원의 변동은 물론 특정 지역을 넘나드는 활동 양상을 해명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16) 가단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16세기 초엽에 산출된 작품의 존재 양상만 살펴보더라도 영남의 경우에는 한시와 시조 그리고 경기체가의 창작과 향유 양상을 볼 수 있는 반면에, 호남의 경우는 한시와 시조 그리고 가사의 창작과 향유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다.

3. 가단의 형성

16세기 영남지역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가단으로 우선 주목하게 되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조윤제 교수가 그 가능성을 시사했던 예안 지방 인물들의 국문시가 관련 활동이며, 좀더 구체적으로는 최재남 교수가 조윤제 교수의 입론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제시한 汾江歌壇의 존재이다.¹⁷⁾

최재남 교수는 경북 예안 지방이 여말 이래로 永川 李氏, 眞寶 李氏, 光山 金氏 등의 가문이 정착한 지역으로서, 이들 가문의 후손들이 조선시대의 사림으로 성장하는 한편으로 굳건한 경제적 기반을 갖추었다고 그 지역적 배경을 설명한 후 “龔巖의 치사 후인 중종 37년(1542)부터 명종 10년(1555)까지 약 14년간 분강을 중심으로 하여 龔巖 李賢輔가 주축이 되어 溫溪 李滢, 退溪 李滉, 錦溪 黃俊良, 龔巖의 여러 자손들이 모여 시회를 벌이고 노래와 춤을 주고 국문시가를 창찬 일군의 집단을 汾江歌壇이라 명명한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⁸⁾

- (1) 분강가단은 1542년부터 1555년까지 활동한 국문시가 및 한시 향유 집단이다.
- (2) 분강가단은 농암을 비롯한 경북 예안 지방의 사대부 계층 인물들로 구성된다.
- (3) 분강가단은 분강 일대의 누정과 암자를 배경으로 부정기적 활동을 벌인다.
- (4) 분강가단은 어부노래 산정을 통한 서정성 확립과 강호가도의 수립이라는 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

이와 같이 최재남 교수는 汾江歌壇이 가단으로서의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점을 자세하게 논증하였기 때문에 이 가단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췌언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특히 약 14년간에 걸친 활동 기간을 적시함으로써 가단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이 가단의 중심 인물이 退溪가 아니라 龔巖이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17) 최재남, “분강가단연구”, 사림의 향촌생활과 시가문학, 국학자료원, 1997, 170-205면.

18) 최재남, 앞의 논문, 183면.

점, 龔巖 및 그의 자손이 주최한 연회가 (1)연회—(2)설작—(3)시회—(4)가무—(5)국문시가창의 순서로 진행되었다는 점 등을 밝힌 것은 괄목할 만한 연구사의 진전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만하다.

이 가단을 汾江歌壇이라 명명한 것 또한 더 이상의 적실한 용어를 찾기 어려운 착안이었다고 하겠다. 이 가단의 활동 무대가 되었던 여러 지소들을 포괄하는 명칭일 뿐만 아니라, 이 가단의 가장 큰 문학사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강호가도의 수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명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인 검토와 논증이 있었다라면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보인다. 우선 이 가단의 중심인물이 退溪가 아니라 龔巖이라는 지적은 조운제 교수의 입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므로 좀더 구체적인 논증이 필요할 것이며, 龔巖을 중심에 뒀으로써 자칫 이 가단이 영천 이씨 가문의 가단으로 비쳐질 수도 있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실상을 좀더 세밀하게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우선 龔巖이 汾江歌壇의 중심인물이라는 점은 여러 각도에서의 논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최재남 교수는 특히 龔巖이 明農堂(1510)·愛日堂(1512)·靈芝精舍(1543) 등 汾江歌壇의 활동 무대가 된 여러 건물을 축조한 점, 환로에 있을 때부터 자주 연회를 베풀어 왔다는 점 등을 중시하여 龔巖을 가단의 중심인물로 상정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운제 교수의 입론이 이 가단 이후에 영남지역에서 산출된 국문시가의 전개과정까지를 염두에 둔 것이었던 만큼, 龔巖의 가단에서의 역할과 위상은 물론 후대에 끼친 영향까지를 논급하여야만 보다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龔巖과 退溪의 관계는 좀더 세밀한 관찰을 요하게 된다.

조운제 교수가 영남가단의 형성 가능성을 논할 때, 이 가단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 인물은 龔巖 李賢輔·藏六堂 李鼈·晦齋 李彥迪·愼齋 周世鵬·退溪 李滉·錦溪 黃俊良 등이었으나, 최재남 교수는 汾江歌壇의 구성원으로서 이들 중 藏六堂과 晦齋를 제외하고 그 대신 溫溪 李瀧(1496—1550)·碧梧 李文樑(1498—1579)·賀淵 李仲樑(1504—82)·西河 任鼎臣(생몰연대 미상)·松岡 趙士秀(?—1558) 등을 추가한 바 있다.

이들 汾江歌壇의 구성원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안 지방의 사대부 계층 인물들이다. 그들은 혈연과 지연에 더하여 환로에서도 적지 않은 인연을 맺고 있으며, 그 중심에 언제나 龔巖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혈연은 논외로 하더라도 지연이나 환로에서 맺은 인연이 지속되고 또 그것이 가단의 형성과 국문시가에 대한 공동 관심사의 구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가령 汾江歌壇이 성립된 해인 1542(중종 37)년을 예로 들어 이들의 연치와 상호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흥미 있는 일이다. 이때 龔巖은 76세, 愼齋는 48세, 溫溪는 47세, 碧梧는 45세, 退溪는 43세, 賀淵은 39세, 錦溪는 26세였다. 碧梧와 賀淵이 龔巖의 아들이고 錦溪가 龔巖의 손서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로서, 이 가단은 언필칭 3세대가 어울어진 가단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3세대에 걸친 인물들이 하나의 가단을 형성할 수 있었던 계기로는 물론 1542년에 이루어진 龔巖의 귀향을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汾江歌壇의 형성에는 龔巖의 대인다운 인품과 碧梧와 賀淵 등 그 아들들의 정성이 결정적인 뒷받침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542년 7월 17일 龔巖이 서울을 떠나던 날 濟川亭과 豆毛浦에서 베푼어진 전송의 연회는 문자 그대로 장관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기라성 같은 대소 신료들은 물론 그 이름을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은 당하관들이 이 연회에 참석하였고, 그들 중 전별시를 증정한 인물로는 曹繼商·金安國·成世昌·宋麟壽·張籍 등과 더불어 후일 汾江歌壇의 일원이 된 松岡과 退溪의 이름이 보인다.¹⁹⁾

특히 退溪의 경우는 연 사흘에 걸쳐 龔巖을 전별하는 시 4편을 지음으로써 龔巖에 대한 지극한 사모의 정과 아울러 龔巖의 뒤를 따르고 싶은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7월 16일에는 당시 京畿都事를 지내던 龔巖의 아들 하연이 부친의 귀향연을 베푼고 예안 출신으로 서울에서 벼슬을 하고 있던 金緣·李濯·李浣·南伯仁과 풍기 출신의 安珽 등을

19) 『龔巖集』 권5(『한국문집총간』 17, 434-436면.) 참조. 본문의 날짜는 물론 음력으로 기록된 것이다. 앞으로 인용되는 연월일도 마찬가지이다.

초대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退溪는 <送李參判南行>이란 제하의 근체시 1수를 지은 바 있다. 그리고 17일 濟川亭에서는 <送李參判辭還>이란 제하의 7언 절구를 짓고, 또 鄭世虎·金光準·周世鵬·安珽 등과 함께 楸子島까지 龔巖을 모시고 가는 배 안에서 <再次舟中>이란 제하의 7언 절구 3수를 짓고, 楸子島에서 龔巖을 전별한 다음날인 18일 새벽에는 비바람이 이는 것을 보고 龔巖의 귀향길을 걱정하는 심정을 <奉餞李先生 是夜獨宿書堂 曉起風雨淒然 有感而作 示竹窓>이란 제하의 7언 절구 2수로 드러낸 바 있다.²⁰⁾ 이러한 기록 가운데서도 후일 汾江歌壇의 일원이 된 愼齋와 溫溪의 이름이 보이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사소한 예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龔巖이 退溪에게 있어 어떤 존재였던가 하는 점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退溪에게 있어 龔巖은 단순한 동향의 선배가 아니었다. 汾江歌壇이 3세대에 걸친 인적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단적으로 말해 주듯이 龔巖은 도처에서 세대와 신분의 격차에 결코 구애되지 않고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인사들을 포용하는 대범함을 보여준 바 있다. 국문시가의 한 획을 긋고 있는 龔巖 어부가의 산정에 있어서 退溪는 물론 錦溪와 西河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83세의 노인이었던 龔巖이 33년이나 연하인 退溪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로서 범부로서는 흉내조차 내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²¹⁾ 또한 龔巖은 退溪가 동경해 마지않았던 강호가도를 한 걸음 먼저 몸소 실천해 보여줌으로써 退溪에게 있어 환로에 있을 때나 강호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존경해 마지않는 인품과 풍류를 보여준 삶의 귀감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²²⁾

다음으로 이 汾江歌壇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龔巖의 주도하에 이 가단이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활동하였다는 증거를 찾아야만 할

20) 앞의 책 같은 곳 참조.

21) 龔巖의 「與退溪」(『龔巖集 續集』 권1.; 『한국문집총간』 17, 442-443년) 및 退溪의 「書漁父歌後」(『退溪集』 권43 : 『한국문집총간』 30, 458년) 참조.

22) 농암이 퇴계에게 보여준 애정과 정성 또한 지극한 것이었다. 분강가난과 연관된 사실만 적시하더라도 퇴계 역시 가단을 구성하는 일원이기는 하였지만 언제나 농암의 주빈으로 대접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龔巖年譜』는 汾江歌壇이 그 맹주인 龔巖의 주도 하에 비교적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활동을 전개했던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정기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가단의 구성원들이 모인 날짜가 3월, 6월, 9월의 15일경에 집중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봄에는 주로 杏花나 躑躅花 또는 桃花를 감상하고(1544년 4월, 1550년—1552년 3월), 여름에는 주로 분강에 배를 띄워 달을 보며 풍류를 즐기고(1547년 7월, 1548년—1550년 6월), 가을에는 주로 단풍을 감상했다는 기록(1544년·1547년—1549년 9월)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임들이 음력으로 15일경 즉 보름달이 환하게 밝은 날을 기약하고 이루어졌으며 봄이나 가을에도 꽃과 단풍을 감상한 연후에는 분강에 배를 띄우고 달을 감상하는 모임으로 이어졌다는 기록(1544년 4월, 1548년 9월)이 산견되는 것으로 보아, 그 활동의 대종은 아마도 달 밝은 밤에 분강에 배를 띄우고 한시를 창수하고 어부가 등의 국문시가를 가창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²³⁾

널리 알려지고 자주 인용되는 글이기는 하지만, 退溪가 집필한 龔巖의 행장은 汾江歌壇의 맹주로서 분강 일대의 산수를 소요하며 한시 창작과 국문시가 향유에 전념했던 龔巖의 만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공은 아름다운 산수를 매우 사랑했다. 공이 거처했던 汾川은 洛東江의 상류이어서 산색이 밝고 물이 맑아 숲과 계곡이 깊고 수려하였다. 산의 동쪽 언덕에는 큰 바위가 물가에 있어 열 길이나 솟아 험하고 기이하게 불끈 솟았는데 공이 특히 사랑하여 그 위에 집을 짓고는 어버이를 모시고 놀며 구경하는 곳으로 삼았으니 이른바 愛日堂이다. 이로 인하여 스스로 龔巖이라 호를 삼았다. 벼슬에서 물러나 한가해진 후로는 더욱 溪山 사이에 몸을 맡겨 흥이 날 때마다 문득 가서 놀다가 돌아오기를 잊었다. 나갈 때는 반드시 산에서 노는 작은 기구를 뒤따르게 하여 혹은 대지팡이와 짚신으로 숲을 뚫고 언덕에 오르고 혹은 두 종에게 가마를 매게 하며 냇물을 따라 순행하니 전부와 목동이 바

23) 『龔巖先生年譜』 권1(『한국문집총간』 17, 455—472면) 가운데 분강가단과 연관된 76세 부터의 기사 및 세주 곳곳에 가단의 모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 남아 있다.

라보고도 그가 재상임을 알지 못하였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물과 돌이 제법 맑고 그늘진 곳에 반드시 자리를 나누어 같이 앉아 흡족하여 기뻐하되 술은 불과 두서너 잔만 마시면서 종일토록 싫증을 내지 않고 담소로 환락하였으며 인품이 맑아서 한 점도 富貴와 塵埃의 기미가 없고 간혹 글을 지어서 청신하게 뜻을 세우니 젊은이의 기세 있는 작풍도 미칠 바가 아니었다. 僧舍에서 놀기를 좋아하여 靈芝 屏庵 月瀾 臨江이 다 그 곳인데 마지막에는 항상 臨江에 우거하였다. 때로는 혹시 가벼운 배와 짧은 삿대로 왕래하면서 놀고 구경하되 모시는 아이에게 漁父詞를 노래 부르게 하여 흥을 붙여서 표연하게 세상을 떠나 홀로 있는 것과 같은 뜻이 있었으니 당시의 사람들이 높이 우러러 보아 지나는 자가 반드시 그 집에 가서 뵈옵고 문안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²⁴⁾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汾江歌壇의 활동 기간이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최재남 교수는 龔巖이 환로에서 물러나 귀향한 1542년부터 타계한 1555년까지의 14년간을 이 가단의 활동 기간으로 추정한 바 있다. 현재까지 전하고 있는 여러 기록들이 이 가단의 활동이 전적으로 龔巖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추정은 그 실상으로부터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가단의 구성원이 3세대에 걸쳐 있었고 龔巖이 유일하게 그 1세대에 속한 인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龔巖의 타계가 곧 가단의 해체 내지는 활동 중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다소간의 무리가 있어 보인다. 예컨대 1550년 2월 龔巖에 이어 고향에 정착함으로써 이 가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退溪의 경우만 보더라도 龔巖의 타계 후인 1561

24) 「行狀」(『龔巖集』 권4; 『한국문집총간』 17, 418-422면.)“(…)公酷愛山水 所居汾川乃洛上之流 山明水麗 林壑深秀 山之東崖 有巨石 臨水陡起 高十餘丈 偃蹇奇崛 公特愛之 築室其上 以爲奉親游玩之所 卽所爲愛日堂也 因自號龔巖 退閒之後 尤自放於溪山間 每遇興到 輒縱游忘返 其出 必以遊山小具自隨 或竹杖芒鞋 窄林陟巖 或藍輿兩老 傍野溪深 自田夫牧豎見之 不知其爲宰相也 其遇可人與一水一石稍清蔭處 必班荆而坐 得意欣然 飲酒不過參兩杯 談笑輒齊 終日不倦 風神蕭洒 岸韻森逸 無一點富貴塵埃氣 間出篇章 立意清新 有非少年盛作所可及也 好遊僧寺 靈芝屏庵月瀾臨江皆其所 而最後常寓臨江 時復輕舟短棹 往來游賞 令侍兒歌漁父詞以起興 飄然遺世獨立矣 時人莫不高仰之 過者必造問候謁爲幸焉(…)”

년 4월에는 濯纓潭에서 1562년 3월에는 淸溪臺에서 여러 제자들과 뱃놀이를 하였으며 같은 해 7월에도 風月潭에서의 놀이를 계획한 적이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 이러한 사실은 1565년 退溪의 <陶山十二曲>이 인출된 사실과 아울러 이 가단의 활동이 여전히 계속 또는 계승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²⁵⁾

더욱이 龔巖의 여러 아들들 특히 여섯째 아들인 梅巖 李叔樾(1519—92)의 경우는 龔巖의 유훈과 이 가단의 현장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梅巖은 그 생존연대로 보아 汾江歌壇의 분위기에 익숙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실제에 있어서도 汾江歌壇의 활동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1578년 2월의 일이다. 이때 梅巖은 碧梧·賀淵·串巖·杏巖 등 여러 형제와 더불어 續九老會를 개최하고, 잔치가 있는 다음날에는 여럿이 함께 분강에 배를 띄우고 龔巖에도 오르는 등 지난날의 汾江歌壇이 보여주었던 풍류를 그대로 재현한 바 있는 것이다.²⁶⁾ 또한 梅巖은 스스로 <汾川講好歌> 6수를 짓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에 후손들을 모아 주찬을 베풀고 강론을 하는 자리에서 그 노래를 함께 부르는 절차를 가졌던 것이다.²⁷⁾

이러한 기록들은 龔巖의 타계 후에도 汾江歌壇의 구성원들 중에는 간헐

25) 『退溪先生年譜』 권1·2(『한국문집총간』 31, 220-240면.) 및 이동영의 『조선조 영남시가의 연구』(형설출판사, 1984.), 이민홍의 『사람과문학의 연구』(월인, 2000.), 최재남의 『이황의 도산생활과 육가의 수용과 전승』(『사람의 향촌생활과 시가문학』, 국학자료원, 1997.) 등 참조.

26) 『續九老會敬次先兄韻爲諸公要和 并序』, 『梅巖集』 권1, 참조.

九老會란 일반적으로 80세를 넘긴 노인을 위한 잔치 또는 모임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하겠으나, 영친 이씨 가문에 있어서의 구로회란 남다른 의미를 지닌 행사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龔巖은 1533년 9월에 부친인 參贊公 欽(94세)과 숙부인 直長公 鈞(92세)의 장수를 기리는 뜻으로 장인인 同知 權受益(82세)과 향리의 노인 6인을 모시고 구로회를 개최한 바 있고, 龔巖이 81세에 이른 1547년 9월 9일에는 여러 자손들이 龔巖의 장수를 기려 續九老會를 개최한 바 있다. 따라서 1578년 2월에 개최한 續九老會는 龔巖의 아들 중 맏이인 碧梧 李文樾(1498—1579)이 81세에 이른 것을 축하함으로써 가문의 전통을 잇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27) 분천강호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심재완의 「분천강호가고」, (『동양문화』 9집, 영남대 동양문화연구소, 1969.)와 최재남의 「소학적 세계관의 시적 진술방식」(『사람의 향촌생활과 시가문학』, 국학자료원, 1997.) 등 참조.

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국문시가를 창작하고 향유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汾江歌壇의 활동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汾江歌壇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개별적인 활동이라고 볼 것인가, 이도 저도 아니면 별도의 성격을 지닌 새로운 가단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논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만의 하나 이들 기록들이 대를 이은 汾江歌壇의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汾江歌壇의 활동 기간은 수정되어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또한 개별적인 활동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렇게 된 연유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만 할 것이고, 특히 새로운 가단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개연성이 큰 만큼 더욱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비록 후대의 일이기는 하지만 18세기 여향인들에 의하여 형성된 가단이나 시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중심인물이 사망한 후에 그 구성원들이 다소간의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새로운 가단이나 시사를 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또 다른 가단의 가능성

이 글은 무엇보다도 특정한 시기, 특정한 구성원, 특정한 집단 활동 내용과 그 활동 무대를 전제로 가단을 논의해야만 한다는 점에 유의해 왔다. 그런 전제를 바탕으로 영남가단이란 범칭을 부정하고 그 대신 龔巖을 중심으로 형성된 汾江歌壇이 존재했다는 주장을 지지하고 그 실상을 보완하여 설명하려고 노력한 셈이다.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남지역에 또 다른 가단들이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논증하는 일이 필요하다. 비록 가상이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汾江歌壇과 그 활동 시기는 물론 구성원의 계층 및 신분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활동 내용도 유사한 가단의 존재를 논증할 수 있다면, 우리 국문시가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있어 가단이란 개념이 훨씬 더 유용하

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가상의 또 다른 가단들이 그 지역적 분포에 있어서도 汾江歌壇의 터전이 되었던 예안 지방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그 활동 무대로 삼고 있을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汾江歌壇과 또 다른 가단들을 대비하여 각 가단의 특성을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는 준거의 틀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로 다양한 가단이 우리 문학사에 존재했고 또 그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활동을 통하여 국문학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검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동영 교수가 일찍이 영남지역에서 산출된 국문시가를 검토하는 대전제로서 영남지역을 嶺左·嶺右·江岸의 3개 지역으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또 실제 이들 지역에서 산출된 국문시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적용한 일이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동영 교수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영남의 시가는 영남의 지리적 환경, 인물의 학맥, 지역간의 결연, 그 모든 인과관계가 무관할 수 없다. 그런데 영남이라고 하더라도 左道와 右道가 구분되고, 또 左道에서는 上下의 지역적 문화차가 있고, 右道에서는 江右의 학문적 맥락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그래서 영남지역을 다음 세 지역으로 분할하였다. 첫째 嶺左地域이요, 둘째 嶺右地域이요, 셋째 星州, 高靈, 漆谷, 永川이 嶺左右의 학연을 접맥시켜 주는 문화권으로서 尙州를 포함하여 江岸地域으로 등분하였다.²⁸⁾

이와 같이 영남지역을 3등분하게 되면 앞서 살펴본 汾江歌壇은 영좌지역에서 활동을 전개한 최초의 가단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히 영우지역과 강안지역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가단의 존재 여부에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영우 또는 강안지역에서 산출된 국문시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고 하겠으나, 이 지역에 가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

28) 이동영, 『조선조 영남시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4, 2-13면.

여주는 기록이나 자료는 아직까지 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지금부터의 논의는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단편적인 기록이나 자료를 근거로 그야말로 가상의 가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예단해 보는 데에 그치고, 구체적인 가단의 실상을 입증하는 일은 후일을 기약하기로 한다.

가령 최근의 한 연구논문²⁹⁾이 소개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자료는 16세기, 좀더 구체적으로는 1566년 3월 16일과 17일에 걸쳐 영우지역에 해당하는 경남 함양에서 일군의 사대부 계층 인사들이 모여 한시를 짓고 국문시가를 가장한 일을 기록하고 있다. 이 모임을 곧 가단의 활동이라고 어렵지만, 영우지역에도 가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 주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1566년 3월 13일 徙菴 盧示果(1522—74) 梅村 鄭復顯(1521—91) 介菴 姜翥(1523—67)과 사형인 開巖 金宇宏(1524—92)이 나에게 왔다. 濫溪書院에 모여서 담화를 하다가 16일 西溪에 가기로 기약하였다. 이날 날씨가 흐렸다 맑았다 하였으나 모두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雷溪 옆 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기다리다가 우리와 동행한 이들을 맞이하였다. 竹軒 鄭仲允, 梅菴 曹湜(1526—72) 그리고 사형인 沙溪 金宇容(1538—67) 등이 따라왔다. 함께 西溪를 찾으니 계곡은 天嶺郡(지금의 함양군) 서쪽 10리 못 미쳐서부터 굽이치는데 숲이 울창하고 골짜기가 깊으며 돌이 깨끗하고 물이 매우 맑았다. 모두들 골짜기 입구에 말을 풀어놓고 이끼 낀 바위 위를 걸어갔다. 다섯 걸음을 걷고 돌아보고 열 걸음을 걷고 앉았다 하면서 매번 아름다운 곳을 만날 때마다 문득 읊조렸는데 모두가 자득한 흥취가 있었다. 이에 각자 시를 읊어 뜻을 말하여서 청유를 기록하였다. (...) 梅菴과 介菴이 사형인 開巖과 더불어 술에 취해 서로 화답하며 노래를 불렀는데 탁월한 흥취가 솟아났다. 介巖이 스스로 지은 노래 몇 곡을 불렀는데 뜻이 평원함에 이르러 더욱 완상할 만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한 번 노래함에 세 번 감탄하게 했다. 노래가 파하자 마침내 비를 맞으며 말을 타고 돌아왔다. 廣惠院에 이르러 樓에 올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날이 개자 헤어졌다.³⁰⁾

29) 권순희, 「『短歌三槧』의 장자 맥락과 시적 지향」, 『한국시가연구』 8집, 2000, 213-231면.

東岡 金宇顥(1540-1603)이 지은 이 글은 특정한 가단의 이틀간의 활동을 보여주는 듯한 면이 없지 않다. 우선 일군의 사대부 계층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산수를 즐기며 한시를 주고받다가 마침내는 국문시가를 가창하면서 흥겨워하는 모습을 역력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임의 배경을 알고 보면 이 모임을 그대로 하나의 가단이라 지칭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우선 이 글을 쓴 東岡은 예외라고 할 수 있지만 그의 두 형 開巖과 沙溪는 그 세거지가 星州인 이른바 강안지역 출신들로서 이 지역에서 가단 활동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 것으로 보인다. 세 형제가 함양에 모이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아마도 만행인 伊溪 金宇弘이 함양에서 벼슬을 살며 그 모친을 봉양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 형제들과 함양의 여러 선비들이 모임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東岡이 그 매개가 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東岡은 영우지역에서 도학의 문을 연 南冥 曹植(1501-1572)의 외서손이자 문하생으로서 이 지역의 많은 선비들과 동문수학의 인연을 맺고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모임은 지극히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모임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으로부터 가단의 가능성을 엿보게 되는 것은 인용문의 뒷부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이 西溪를 벗어나기 직전에 술에 취하여 국문시가를 노래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인용문은 梅菴, 介菴, 開巖 세 사람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였지만,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은 介菴과 開巖 두 사람이다.³¹⁾ 왜냐 하면 이 모임에서 주고받은 시편 가운데는

30) 김우옹이 쓴 「西溪唱酬三首并小序」(『東岡集』 권1, 『한국문집총간』 50, 190-191면.) 중 서문의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 강익의 『介菴集』上(『한국문집총간』 38, 210-211면.)에도 같은 글이 실려 있는데, 인명을 열거할 때 介菴을 앞세우고 일부 내용을 첨삭했다. “嘉靖丙寅仲夏十三日 盧徙菴子將示果 鄭梅村遂初復顥 姜介菴仲輔翼 開巖舍兒泊余 會話于濼溪書院 共結西溪之約以既望之日 是日午陰乍晴 諸君不失期 相俟于雷溪 邊樹下 邀我輩同行 鄭竹軒仲尹 曹梅菴幼清漫 與沙溪舍兒隨焉 共訪西溪 溪杆天嶺郡西未十里 林深谷幽 石潔泉清 諸君皆卸馬澗門 足踏苔巖 五步一顧 十步一坐 每得佳處 輒嘯吟 咸有得得之趣 於是各賦言志 以記清遊(…) 幼清仲輔與開巖 酣歌相和 逸興發越 仲輔歌所製數闕 思致平遠 尤可翫賞 令人一唱三歎 歌罷 遂騎馬帶雨而歸 至廣惠院 相與登樓 敘話鬪時而別”

31) 강익과 김우평은 둘 다 시조 작가이다. 강익의 경우 3수의 시조가 문집에 수록되어 있고, 김우평은 <開巖十曲> 즉 12수의 시조를 지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8수밖에 전하지

노래를 부른 뒤에 梅菴이 지은 다음과 같은 한시가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有興詩難遣 흥이 있으나 시로는 다 펼 수 없고,
 多愁酒不消 수심이 많아서 술로는 씻을 수 없네.
 開巖歌一閱 개암이 노래 한 곡을 부르니
 聊可慰今宵 애오라지 오늘밤을 위로 받네.³²⁾

東岡의 서문과 梅菴의 한시는 대단히 흥미 있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東岡은 그의 사형인 開巖이 노래 부른 사실은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 지역의 인사인 介巖이 스스로 지은 노래를 부른 사실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하여, 이 지역의 인사인 梅菴은 멀리서 온 開巖의 노래를 높이 평가하는 시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이 한시는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더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하나는 이 시기의 사대부 계층이 詩로는 다 펼 수 없는 興을 歌 즉 노래가 껴계 해 준다는 인식을 강하고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東岡에게 있어서는 그의 사형인 開巖의 노래가, 梅菴에게 있어서는 동향인이자 동문인 介菴의 노래가 이미 귀에 익은 노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이야말로 開巖이 정착한 경북의 尙州 등 강안지역과 梅菴과 介菴의 세거지인 경남의 咸陽·山淸 등 영우지역에 이미 가단이 형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영우지역의 경우는 南冥을 정점으로 하는 가단의 형성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南冥이 지은 시조가 전하고 있다는 점, 영우지역 시조 작가의 한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는 玉溪 盧禎(1518—1578)이 기실은 介巖과 동문수학한 사이로서 평생토록 막역한 지기였다는 점, 이들 세 사람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산수 간에 노닐 일

않는다. 강의의 생애와 문학에 대해서는 이동영 교수의 저서와 권순희 님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라고, 김우깡에 대해서는 조해숙의 「義城 金門의 時調 落穂 11首에 대하여」(『관악어문연구』 제19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4, 143-160면)를 참고하기 바란다.

32) 曹湜, 「西溪唱酬」, 『介菴集』上: 『한국문집총간』 38, 210면.

이 있다는 점 등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가단 형성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일은 후일을 기약하거나와, 玉溪가 介菴 사후에 지은 제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남기고 있는 것은 그 가능성을 입증하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라는 점을 말해 주고 있는 듯하다.

나는 황송하게도 그대의 인척인데다 같은 향리에서 살았는데
 내가 장가들고 그대 총각일 때 처음 만나 서로 찾고 노닐었도다.
 나는 본디 편벽되고 얽았으나 그대는 넓고도 깊었고
 나는 실로 가법고 약했지만 그대는 고요하고 진중했으니.
 그러나 그대는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나아감을 허여하여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은 적이 없었도다.
 내가 병들고 고통스러워하면 그대는 약을 보내 주고
 재촉하거나 책망하기보다는 덕으로써 나를 낮게 했도다.
 그대는 진실로 나의 포숙야로 시종일관 막역했도다.
 내 집에 음식이라도 생기면 반드시 그대와 함께 즐기고
 열흘에도 몇 번씩 만났지만 마주 대하면 돌아가길 잊었도다.
 밤과 낮을 연이어 삼사일 노닐기를 예사로 하고
 콩밥에 명아주국일망정 싫어하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도다.
 청산에 아침이 밝아오거나 가을 시내에 저녁 기운 서늘할 때
 부르고 이끌고 담소를 나누니 즐거움이 한이 없었도다.
 그대 본디 무리 중에 출중하고 또 밝고 맑고 통달하여
 뜻에 맞맞은 곳을 만나면 정취와 경물이 함께 어울렸도다.
 정신이 회통하면 말을 잊었다가 드리내어 노래하고 읊조리니
 어둡고 막힌 나를 돌아보며 마음 깊이 탄상하고 흠모하여
 바야흐로 벼슬 버리고 시냇가 마을에서 함께 늙자 기약했도다.

余忝聯派 又同鄉里 我壯君亦 遊訪相尋
 我本褊淺 君則弘深 我實輕弱 君則靜鎮
 然不我遺 許以並進 我言我爲 君匪不得
 我病我痛 君則下藥 猶不督責 飲我以德

實我鮑叔 始終莫逆	其在家食 必與君娛
一句累遇 對輒忘鄒	留連宵晝 曠日三四
豆飯藜羹 不厭不愧	青山朝榮 秋溪夕涼
招携笑語 其樂無央	君本出類 迥然清通
遇適意處 情景俱融	會神忘言 發以謳吟
顧我昏滯 歎賞心欽	方期投笏 共老溪巷 ³³⁾

5. 요약과 전망

이 글에 주어진 과제는 이른바 영남지역에 있어서의 가단의 형성과 그 전개과정을 살펴보는 일이었다. 그 결과 16세기의 전반에 경북 예안 지방에서 龔巖을 중심으로 활동한 가단의 존재를 다시 한 번 입증하고, 이 가단의 명칭에 대하여는 애초에 제안된 바 있는 영남가단이란 명칭보다는 최근에 제안된 汾江歌壇이란 명칭이 더욱 실상에 맞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루하고 장황한 논의를 하는 가운데 행간에 담아두었던 몇 가지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영남가단이란 명명법은 영남지역에 단 하나의 가단만 존재했다는 확증이 없는 한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다. 영남가단이란 용어를 영남지역에서 산출된 국문시가의 내용과 그 역사적 흐름을 조감할 때에 한하여 계속 범칭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그 역시 혼란을 초래할 것은 분명하다. 영남가단이란 용어 대신에 영남시가란 용어를 잠정적으로 쓰자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龔巖을 맹주로 하는 경북 예안 지방의 汾江歌壇의 존재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충분히 입증된다. 이 가단은 龔巖의 어부가 산정과 향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과 자연과 노래가 하나의 도를 이루는 경지를 추구함으로써 우리 문학 특히 한시와 시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가단에 새로이 부여된 汾江歌壇이란 명칭은 가단의 활동무대가 되었던 여러

33) 盧禎, 「祭姜介菴翼文」, 『옥계집』 권2, 『한국문집총간』 37, 244-245면.

지소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 16세기 국문시가 연찬 및 향유의 중심지이자 강호가도라는 사대부 계층의 새로운 문화 창출지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 동의한다.

아울러 영남지역을 적어도 嶺左·嶺右·江岸 등 좀더 세분된 지역으로 나누어 그 각각의 지역에 가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국문시가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汾江歌壇의 문학사적 의의를 더욱 분명하게 입증하는 길이 되기도 할 것이다.

예컨대 영우지역의 경우 南冥 曹植을 정점으로 하는 가단이나 또는 남명의 제자들이 중심이 된 가단의 형성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며, 강안지역의 경우 開巖 金宇宏이 중심이 되거나 또는 그 일원으로 참여한 가단의 형성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영좌지역의 경우에도 龔巖이 타계한 후에 退溪를 중심으로 한 가단이 형성되었을 가능성 또한 없지 않아 보인다. 汾江歌壇은 이러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가단의 활동을 분석하고 해명하는 가장 분명한 준거의 틀로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

참고문헌

- 금장태, 『퇴계철학의 탐구』, 서울대 출판부, 1998.
- _____, 『한국유학의 탐구』, 서울대 출판부, 1999.
- 김병국, 『고전시가의 미학 탐구』, 월인, 2000.
- 권두환, 「조선후기 시조가단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5.
- 권순희, 「『短歌三?』의 창작 맥락과 시적 지향」, 『한국시가연구』 8집, 2000.
- 성호경, 『조선전기시가론』, 새문사, 1988.
- _____, 『한국시가의 유형과 양식 연구』, 영남대 출판부, 1995.
- 손오규, 『산수문학연구』, 제주대 출판부, 2000.
- 심재완, 「분천강호가고」, 『동양문화』 9집, 영남대 동양문화연구소, 1969.
- 여기현, 『고전시가의 표상성』, 월인, 1999.
- 윤사순, 『한국유학연구』, 현암사, 1980.
- _____, 『한국유학사상론』, 열음사, 1986.
- 이동영, 『조선조 영남시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4.
- 이민홍, 『사림과문학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5.
- 이성무, 『조선조기양반연구』, 일조각, 1980.
- 이수건, 『영남사림파의 형성』, 영남대 출판부, 1979.
- 정익섭, 『호남가단연구』, 진명문화사, 1975.
- _____, 「16세기의 호남가단 연구」, 『시조학논총』 제3·4집, 1987·88.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1983.
- 조윤제, 『조선시가사강』, 박문출판사, 1937.
- _____, 『한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48.
- _____, 『한국시가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8.
- _____, 「퇴계를 중심으로 한 영남가단」, 『논문집』 8, 청구대학, 1965.
- 조해숙, 「義城 金門의 時調 落穂 11首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제19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4.
- 최재남, 『사림의 향촌생활과 시가문학』, 국학자료원, 1997.
-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 성균관대 출판부, 1977.
- _____, 『한국고전시가의 형상성』, 성균관대 출판부, 1988.
- 한국시조문학회 편, 『시조문학연구』 제3·4집, 1987·88.

Establishment of Yongnam Gadan(嶺南歌壇) and its succession

Kwon, Du—hwan

The aim of the study was to probe into the establishment of the Gadan(歌壇) in the Youngnam(嶺南) area and the process of its development.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existence of a Gadan(歌壇) featuring Nongam(聾巖) in the Gyungbook(慶北) Yeaan area was proved. The appropriateness of using the recently named 'Bungang Gadan(汾江歌壇)' instead of formerly suggested 'Yongnam Gadan(嶺南歌壇)' was approved.

The need of the study of subdivisions in the Yongnam(嶺南) area and the possibility of the existence of Gadans in each subdivision was suggested. The future studies would help interpreting and explaining in depth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Siga(詩歌) and would be a way to manifest the significance of Bungang Gadan(汾江歌壇)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Keywords : Korean Literature, Siga(詩歌), Gadan(歌壇), Bungang Gadan(汾江歌壇), Lee Hyun—Bo(李賢輔)